



CNN, 트위터에 두 손 들까?



‘CNN, 짧고 빠른 트위터에 두 손 들다.’

결프전 이후 속보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CNN방송이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트위터에 속보와 기사의 질에서 모두 완패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불은 기사 제목이다.

트위터는 말 그대로 집단 수준의 메시지이다. 하지만 그 메시지 속에 URL을 삽입해 사진, 동영상, 긴 글까지 모두 공유하면서 140자의 글자 제한은 오히려 핵심만 전달하는 간결함의 미덕으로 승화됐다.

2011년 현재, 이제 트위터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관련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도 CNN 스티브 브루스트 기자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발표가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사고 소식은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통해, 그리고 트위터의 또 다른 속성인 리트윗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몇 단계만 거치면 얽히고설킨 인맥 네트워크를 타고 순식간에 정보가 퍼지고, 커지고, 구체화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닌 사회현상이자 문화현상이다. 이제 누구나 사회에 관해,

사회를 향해 발언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전통미디어의 위기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새 소식을 받기 위해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켜지 않을 것이라 진단한다. 하지만 트위터에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는 익명성과 광범위한 전달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의 원본은 대부분 전통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이 만들어 내고 있다. 대량매체로서의 존재감은 몇 년전 촛불정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기존 미디어를 숙주 삼아야 하는 존재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역설적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신문과 KBS·MBC·SBS로 대표되는 방송이 없으면 트위터도 없다는 것이다. 트위터와 전통미디어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트위터 열풍’은 전통미디어의 위기가 아닌 전통미디어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언론계의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언론의 구조적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솔직히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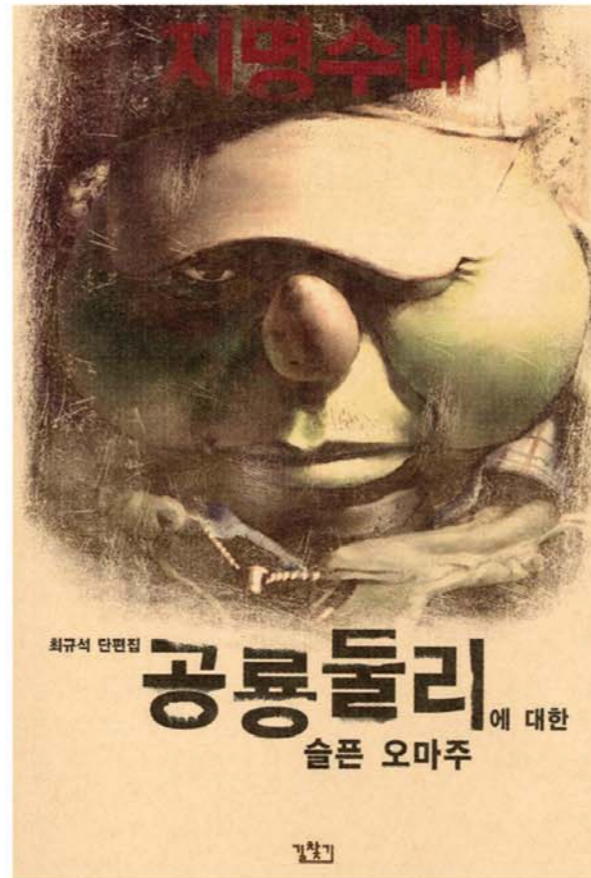
우리나라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단 한번에 ‘YES’라는 답변은 못 내놓을 것 같다. 광고에 의존해 기업 찬양적 기사를 쓰는가 하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이도저도 아닌 기사를 내놓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언론이 기득권층의 대변자라면, 국민은 신문이나 방송을 볼 이유가 없다. 언론이 트위터의 발전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심층취재를 통해 그 다양한 속에서 절충함을 찾아가야만 한다. 그 때 비로소 트위터는 언론에 두 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방송기술저널은 문화를 신선했고, 다양한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실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감상한 책이나 영화, 읽을 수 없는 맛을 지닌 먹거리,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맛있는 여행지 등을 독자 여러분이 직접 소개해주세요. journal@kobeta.com으로 여러분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방송기술저널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룡돌리에 관한 슬픈 오마주



이름 돌리, 주민등록번호 830422-1185600, 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상1동 412-3번지.

‘아기공룡 돌리’는 만화가 김수정이 1983년 4월 전설의 만화잡지 보물섬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이다. 녹색공룡 케라토사우루스 돌리는 얼음벌의 엄마와 헤어져 지구로 왔으며 서울시 쌍문동 고길동의 집에 기거하게 된다. 영화와 철수 남매의 친구가 되고 고길동의 조카 희동이와도 잘 지내지만 고길동은 이상한 생물체 돌리를 영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거기다 군식구인 암컷 타조 토치와 간다빠야 별의 외계인 도우너까지 합세해 고길동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길동은 얹혀사는 주제에 말대꾸는 기본이고 온갖 초능력으로 말쑥을 부리는 이들을 내쫓는 궁리를 하지만 매번 되려 당함만 한다. 돌리가 도우너의 시간여행 바이올린인 타임 코스모스를 타고 친구들과 온갖 모험을 하게 되는 이 경쾌한 만화는 지금도 대한민국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제일 사랑받고 있는 만화 중 하나다.

그런 돌리가 ‘공룡 돌리’로 재탄생 됐다. ‘공룡 돌리’는 2003년 5월 영점프에 실린 최규석의 작품으로 이듬해 발행된 그의 단편집 <공룡 돌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에 수록되어 있다. 2003년은 아기공룡 돌리의 탄생 20주년이 되던 해로 만화의 도시 부천에서 돌리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돌리의 거리를 만드는 등 축제 분위기가 었다. 그런 가운데 출연이 갖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발

칙한 작품 ‘공룡 돌리’가 나온 것이다. 최규석의 단편집 실린 김수정의 추천사에는 “다음에 또 누군가가 돌리를 그리겠다고 한다면 나는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최규석 씨의 공룡 돌리는 단 한 번의 예외다”라고 적혀있다. 추천사의 행간을 읽으며 ‘상상하지 못하는 작가는 작가가 아니며 최규석의 상상력과 용기를 격려’하면서도 자신의 돌리가 강 소주를 든 돌리로 성장해 나타나자 무척 당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최규석의 ‘공룡 돌리’는 2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매일 싸움질을 하는 희동이의 합의금 때문에 도우너를 외계인 실험 박사에게 천사백만 원의 돈을 받고 넘겨주는 철수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민등록증도 없이 일하는 외계인 노동자 돌리는 프레스기계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고는 공장에서 해고된다. 도우너가 잡혀갈 때 손가락으로 ‘호이!’ 하며 외쳐보지만 초능력도 못 쓰는 처지가 됐다. 곧 해부될 위기에 놓인 도우너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쫓아다니지만 모두들 냉담한 반응이다. 길동이 아저씨는 도우너의 사랑발령으로 집을 날리고 빗더미에 앉은 후 화병으로 죽는다. 토치는 동물원에서 몸을 팔며 근근이 생활해 나가고 그나마 돌리와 포장마차에서 쓴 소주 한 잔 하는 마이콜은 밤무대 삼류가수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토치는 도우너를 구하러 가자는 돌리에게 이렇게 외친다. “돌리아! 이제 제발 네 걱정만 하고 살아! 더 이상 명랑만화가 아니잖니.” 그렇게 낡은 작업복에 목장갑, 이 사회의 부적격자 이방인 돌리는 아웅다웅했어도 가장 애증의 관계가 돈독했던 길동의 무덤을 찾아 ‘빙하기’를 맞으며 잠든다.

‘아기공룡 돌리’가 나왔을 때는 바야흐로 5공화국 시절이다. 만화가 김수정이 돌리를 그릴 당시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를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자연, 심의를 걱정하게 된 그는 7살의 장난꾸러기 남자 아이를 공룡으로 바꿔 돌리로 탄생하게 한다. 아기 공룡이 어른 고길동에게 대들어야 하는 캐릭터니까,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으로 설정하는 등 그 배경에도 작가는 심사숙고를 했다고 한다. 아, 버릇없는 똥구똥구 해리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니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나보다.

세월이 흘러 작가 최규석이 ‘공룡 돌리’를 그렸던 해에도 국가보안법은 있었고 노동자들의 삶 또한 여전했다. 사람들은 명랑만화를 보고 웃었지만 삶은 명랑하지 못했다. 전 국민이 월드컵에 열광했을 때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명랑한 삶 속에 감춰진 처절한 현실을 작가는 놀라운 성찰로 그려내고 있다.

- 글 주신이; 컬처라인 문화메신저 ‘쑤세미’

언론을 보는 맑은 창!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3219-5762(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 독 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치료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